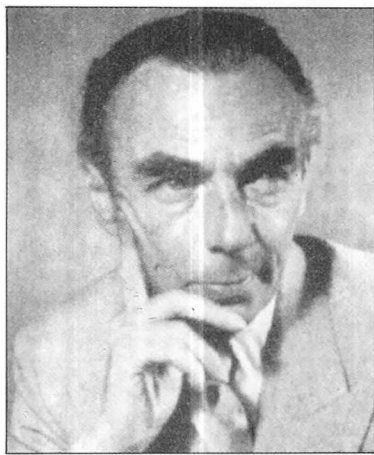


독일작가 케스트너, 왜 인기인가

모두 14종 출간...따뜻한 인간애와 쉽고 평이한 내용



나치시대 '불복종의 작가'로 유명한 에리히 케스트너.

아마 금년도 출판계의 가장 큰 이변으로 손꼽힐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갑자기 불어 닥친 케스트너 열풍일 것이다. 지난 3월, “당신께 이런 증세가 나타날 때 지시된 페이지를 읽으세요.”라는 광고와 함께 점두에 등장한 시집 「마주보기」가 젊은 독자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케스트너의 여타 시집들과 소설집, 희곡집, 산문집이 쏟아져 나와 ‘케스트너 붐’을 조성하고 있다. 사망한지 14년이 지나 정작 독일에서는 잊혀져가고 있는 이 낯선 외국 작가가 지금 이곳에서 느닷없이 맹위를 떨치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80년대 들어서 이해인, 서정윤, 도종환 등의 활약으로 시집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증명되었지만, 외국시인의 시집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출판관계자들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나치시대의 대표적 '국내대명작가'

에리히 케스트너(Erich Kästner)는 1899년 가난한 직공의 아들로 드레스덴에서 출생했다. 장학금을 얻어 라이프찌히, 베를린 양 대학에서 수학한 뒤 1927년까지 「라이찌거 짜이퉁」에서 정치기사를 쓰며 저널리스트로 활약하는 한편, 아동소설과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문학사적으로 볼 때 그는 나치가 지배하던 시대에 베르겐그린, 비헤르트 등과 함께 이른바 ‘불복종의 작가’의 한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히틀러 정권은 모든 문학활동을 ‘국민문학’이라는 기치 아래 ‘피와 흙’의 신화를 구가하는데 바치도록 강요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작가는 현실에 ஏ항, 어용작가가 되거나 국외로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나 이

사망 후 14년이 지난 지금

독일에선 잊혀져가고 있는 작가가

갑자기 88년도 우리 독서계에

비상을 걸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아동작가로만 알려졌던

케스트너가 「마주보기」 이후

현대인의 메마른 정서를 치유하는

정신과의사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 인기의 비밀은 무엇이며

과연 문제점은 없는가.

들 ‘불복종의 작가’들은 국내에 머물러 있으면서 침묵으로 정신적 자유를 지켰다. 초기엔 명랑하고 재미있는 작품을 쓴 인기작가였던 케스트너는 「포연이 꽃피는 나라」를 시발로 일련의 사회고발시를 발표해 나찌 당국에 의해 책이 불태워지고 한때 수용소에 감금되는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끝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전후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었고 51년 독일 펜클럽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하고 뷔히너 문학상, 안셀멘 국제아동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영예를 누리다가 74년 타계했다.

이러한 그의 작가적 경력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그의 작품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력한 현실비판과 풍자성을 담고 있으며 인류의 보편적 휴머니즘에 호소하고 있다. 평생을 ‘어린이들의 진정한 친구’요 ‘소시민의 풍자적 친구’로 자처한 그는 일상생활의 사사로운 체험을 신선한 감각과 기지에 넘치는 문체로 표현해서 환영을 받았다. 박종서교수(고려대 독문학)는 케스트너의 시를 “일상적인 범사를 노래하면서도 감정이 뚜렷하고 기교적으로 정확한 데가 있다”고 평했는데 이점은 우리나라의 케스트너 붐에 결정적 계기가 된 번역시집 「마주보기」(김은주 옮김, 언어문화사)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짧은 시행에 의미심장한 교훈 담아

작가 자신이 ‘정신적으로 효용이 있는 시’ ‘구급처방시’라고 이름 붙인 이 시집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다 갖가지 사사로운 곤경이나 체험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조



언해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경구시’이다. 가령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페이지엔 “해보는 수밖에 길은 없습니다”라는 너무도 당연한 처방이 내려져 있고, ‘우연히 성과를 올렸을 때’에는 “인도로 향해하는 사람이/누구나 다/아메리카를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충고가 곁들여지기도 한다. 이처럼 독자의 의표를 찌르는 의미심장한 교훈으로 가득찬 이 시집은 우선 쉽고 재미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호감을 샀을 것으로 추측된다. 거기다 이 시집에 담긴 약간의 문명비판적 관점도 심리적 각박관념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집에 담긴 현실인식이 대부분 피상적이고 통속적이라는 점,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주기보다는 일회용 당의정 구실밖에 하지 못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돼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20만부가 소화된 「마주보기」 열풍은 케스트너의 다른 작품집 소개에도 불을 붙여, 「마주보기」 이전에는 아동물 「에밀과 탐정」 「날아다니는 교실」, 장편소설 「파비안」(전혜린 옮김, 문예출판사) 등 3종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전부 14종에 이르고 있다. 시집으로 「커다란 장난감」(강명구 옮김, 자유시대)과 「13월」(정태남 옮김, 영학) 「헤어질 때와 만날 때」(동광) 「용기 있는 질문 하나」(윤성자 옮김, 문화광장)가 나왔고 최근 언어문화사에서 「마주보기2」를 펴내 인기의 지속을 노리고 있다. 이밖에 산문집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김해생 옮김, 자유시대) 폰트집 「제자리 찾기」(윤성자 옮김, 숲과함께), 아동소설 「우리 엄마 니네 아빠」(정성호 옮

김, 언어문화사)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나오는 한편, 「파비안」과 동일한 작품을 제목만 달리한 「최후의 증인」(권성원 옮김, 문예춘추) 및 희곡집 「독재자학교」(김학천 옮김, 전예원)가 나와 독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중 「마주보기」를 제외하면 시집 「13월」이 비교적 상업적 성공을 거둔 편이고 독재의 약순한 과정을 그린 희곡집 「독재자학교」가 우리 현실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케스트너 붐’이 일단 감상적인 소녀 취향의 시는 아니라는 점에 긍정적 시선을 던지고 있지만 시류를 탄 케스트너 작품의 무분별한 출판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나와있는 케스트너 시집의 태반이 역자역력조차 나와 있지 않고 번역대본도 밝히지 않은 것은 독자에 대한 실례로 지적되고 있으며, 역시 제목을 원서 제목과 전혀 동떨어지게 붙인 것 역시 지나친 상업주의가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남진우 기자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10개월20호분·값1만원
전화문의: 732-1431~3